

지난해 광주 건설업체 폐업 늘고 공사금액 줄었다

전년보다 8.5% 줄어든 5조3250억원...전국서 가장 많이 줄어 업체 55곳 감소...전남 공사금액도 1.3% 줄어 15조7990억원 전국 공사액 4.7% 늘어난 359조원...절반 가까이 수도권 집중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공사액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공사 감소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업체 수, 광주 본사의 건설공사액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대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국의 건설공사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규모 공공·민간 개발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공사액은 5조 3250억원으로, 전년(5조8190억원)에 견줘 8.5% (494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보다 건설자본이 적게 투입된 지역은 세종(3조6980억원)과 제주(4조1920억원) 뿐이었다.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대전(7조1970억원)과 울산(9조7100억원)은 각각 전년대보다

17.4%(1조650억원), 32.8%(2조3980억원)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전남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전년(16조70억원)보다 1.3% 줄어든 15조7990억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전체 건설공사액은 전년(343조원)보다 4.7% 늘어나 359조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내 공사액은 319조원으로 2.6%(8조원) 늘었는데 수도권 이외 지역이 163조원이었고, 수도권은 전년보다 1.7%(3조원) 감소했지만 국내 공사액의 48.6%인 155조원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건설공사액은 지난 2021년 6조590억원에서 2022년 5조8190억원 등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역시 2022년 1.7%에서 지난해 1.5%로 0.2%포인트

감소했다.

사실상 건설업체 매출로 직결되는 공사액이 줄어든다 보니 건설기업체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체 수는 전년(2748개) 대비 2%(55개) 줄어든 2693개로 집계됐다. 기업체수는 지난 2021년 2728개에서 2022년 2748개로 0.7% 증가했었는데,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지역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광주를 본사로 둔 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액은 지난해 2조2330억원으로, 전년(2조5070억원)보다 10.9%(274억원) 감소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광주지역 공사액은 6060억원으로 역시나 전년(7450억원)보다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지역 건설공사액은 늘었지만 전남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공사액은 2022년 8조2860억원에서 지난해 8조950억원으로 감소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전남업체들의 지역 공사액은 2조4110억원으로, 지난해(2조5430억원)보다 줄었다.

다만 광주는 지난해 건설계약액 부문에서 전년(4조7930억원)보다 63.7% 늘어난 7조845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주 감소와 고금리,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 비용이 상승은 물론, 열악한 지역 자본 상황이 지역 건설업 침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알고리즘, 감시사회에 대해 답한다'...광주상의 경제포럼 세미나

최항섭 국민대 교수 초빙 강좌

"기존의 감시는 일탈 범죄 가능성에 대한 감시였지만, '감시자본주의'에서 감시는 어떤 제품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감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27일 오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정보사회학회 부회장)를 초빙해 '알고리즘, 감시사회에 대해 답한다'라는 주제로 제 270차 광주경제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CEO,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최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범죄가 일상화되고, 코로나 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시하고 감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술실이나 시뮬레이션 등에서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시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개인 자유보다 자신의 안전과 사회 공정성, 공동체 생존을 우선시한다"며 "따라서 CCTV 등 감시기술의 도입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 여론이 크게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론이 나쁘면 정부는 규제를 하지만 여론이 좋으면 그 기술 발전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감시자본주의'에서 감시 산업은 가장 큰 이윤을 창출하며, SNS를 통한 자발적 노출의 시대에 '자기 전시주의' 역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의 광주경제포럼 세미나는

지난 1997년 7월 4일 송연중 광주시장의 '광주 경제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시작돼 매달 한 차례씩 정치·경제·과학·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설화에 스토리 입혀 주세요

전남정보문화사업진흥원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상금 4200만원 6개 작품 선정

(재)전남정보문화사업진흥원이 지역의 우수한 스토리 자원을 활용해 콘텐츠의 원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K-콘텐츠 시대에 어울리는 전남의 설화와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가능한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르 제한 없이 전남을 소재로 한 스토리를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산학연관 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6개 작품(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을 선정할 방침이다.

총 시상금은 4200만원으로, 대상에 상금 2000만원과 전라남도지사상,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상금 800만원과 200만원과 전남정보문화사업진흥원장이 수여된다.

접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흥원 누리집(www.jci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은 후 필수 제출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ekyim@jci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범람하는 콘텐츠들 속에서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원석 같은 스토리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기발한 스토리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전남 콘텐츠 혁신대상' 공모전(-9월 3일)과 '나주시 소품 영상 공모전'(-9월 6일), '전라남도 생성형 AI 이미지 콘텐츠 공모전'(-9월 6일)도 진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은행, 토스뱅크와 금융권 최초 공동대출 상품 출시

개인 신용대출 상품 '함께대출'

광주은행이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금융권 최초로 공동대출 신규 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했다.

함께대출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전국 단위 인프라를 형성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함께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상품이다.

함께대출은 금융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은행과 토

스뱅크가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적절한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대출금을 절반씩 부담한다.

광주은행은 토스뱅크 앱을 통해 전국의 고객을 확보하고, 토스뱅크는 부족한 자본력을 광주은행으로부터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능해 향상된 접근성과 편의성을,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다각도 평가로 높은 정확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함께대출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증명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4.87%를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 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대출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

박종중 광주은행 부행장은 "양 은행의 오랜 노력과 협력을 통해 함께대출이 출시될 수 있었다. 편리하고 정확한 함께대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위니아, M&A 성공 위한 노사 공동 결의문

(위니아 노사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빠른 시일 내 M&A(인수합병)에 성공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위니아는 27일 "김치냉장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수성하기 위한 노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니아 노사는 지난 26일 만나 인수합병 절차에 속도를 내 경영을 정상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체질개선 임금 삭감에 대한 협조와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 및 협력,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조항 재검토 등에 동의했다.

위니아 노사는 이번 공동 결의문을 채택이 조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 M&A 진행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혁표 공동관리인은 "노사 상호 신뢰와 존중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신속한 M&A 진행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수요가 많은 하반기를 대비해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전용 리스 출시

배터리 잔존가치 선반영 할인

현대차가 현대캐피탈과 함께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일렉트릭 전용 리스 금융상품 '배터리 케어 리스'를 출시했다. <사진>

27일 현대차에 따르면 배터리 케어 리스는 현대캐피탈 앱을 통해 주행·충전 습관과 배터리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과 배터리 잔존가치를 선반영해 리스 가격을 할인해주는 신규 구매 방식을 결합한 상품이다.

배터리 잔존가치 선반영 할인은 국내 최초로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된 구매 방식이다.

배터리 가격 할인분은 캐스퍼 일렉트릭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해 잔존가치를 산정하고,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배터리 제조사에서 선구매 방식으로 부담한다.

고객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5년간 신차 리스로 구매하면 폐차 시점인 10년 후의 배터리 가격만큼을 선 할인 받는다. 이에 따라 캐스퍼 일렉트릭 5년 배터리 케어 리스의 월 비용은 27만3000원으로, 캐스퍼 가솔린 모델 리스 비용보다 1만4000원 저렴하다. 신차 리스가 종료된 뒤 차량은 5년 동안 중고차 리스로 판매 후 폐차된다. 배터리는 선구매한 회사에서 수거한다.



수거된 배터리는 잔존 수명 및 성능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소 등에 재사용되거나 리튬, 니켈 등 원재료를 추출해 새 배터리로 재활용된다.

현대캐피탈은 배터리 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리스 종료 후 30만원의 보상을 지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배터리 케어 리스 상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현대캐피탈 캐스퍼 리스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TP '노지정밀농업 데이터 표준정립 위원회' 개최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최근 AI(인공지능) 노지정밀농업 데이터의 표준체계를 정립하고 정밀농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지정밀농업 데이터 표준정립 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지정밀농업 데이터 표준정립 위원회에는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정보문화사업진흥원, 전남농업기술원, 국립순천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실종기업 4개사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IoT(사물인터넷), 로봇, 비전, 드론 등 활용 생육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표준위원회를 통한 노지밭작물 생육데이터 표준 정립, 품종·기후·토양·병해충·관수·시비·방제 등 연관 환경·시계열 데이터 결합 노지밭작물 데이터 표준화, 노지 대표밭작물의 생육 전주기 데이터 기반 최적 식생지도출, AX랩·통합관계센터·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 및 AI솔루션 실증 기업 지원 등 세부 분야별 추진 내용을 논의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농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 방식만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밀농업 기술을 도입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농업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세대의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농업에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열골

"경청하고 배려해 세금 누구나 편하게 낼 수 있게 하겠다"

박광중 광주지방국세청장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경청하고,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배려하고, 과세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큰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모든 납세자가 편하게 세금 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생각입니다."

박광중 신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취임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국립세무대학을 나온 박 청장은 올해로 공직에 입문한지 38년째, 세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베테랑이다. 2016년 9월 광주세무서장, 2017년 12월 북광주세무서장 등을 거쳐 지역 사정에도 정통하다.



그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걷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자,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라며 "지역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장려금 등 복지 세정의 혜택도 누구나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세법교실·세금컨설팅의 품질

을 보다 향상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한편, 현장간담회와 세정 홍보도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의 불편부당한 집행 ▲과학 세정 정착을 통한 스마트한 세정 등도 약속했다.

박 청장은 "관리자의 품성과 스타일에 따라 직원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서로 정성을 다해 존중하고 격의없이 소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면 좋겠다"고 광주지방국세청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9.25 (-8.7%)
↓ 코스닥	764.95 (-1.84)
↑ 금리(국고채 3년)	2.940 (+0.050)
↑ 환율(USD)	1334.80 (+8.00)